선지식에 길을 묻다

불영 자광 대종사 (조계종 원로의장)

“포교=수행, 이젠 ‘부처님 法’ 전해야 합니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종정 추대, 총무원장 인준, 종헌 개정안 인준 등의 권한을 가진 종단 최고 의결 기구이다. 원로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는 임무를 가진 자리다. 올해 4월 원로회의 새 의장에 불영 자광 대종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자광 대종사는 1세대 군승이자 군종특별교구장으로서 한국불교 군포교 역사에 새 장을 열었고, 호계원장 · 동국대 이사장 등 주요 소임을 역임한 조계종단의 어른이다.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불교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자광 대종사에게 들었다.

〈편집자 주〉



불영 자광 대종사는… 구례 화엄사에 입산해 경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거쳐 동국대 종비생 1기로 졸업하고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했다. 월남전에 참가하기도 한 대종사는 귀국 후 3군 선봉사와 육군사관학교 호국선원을 창건했다. 1981년 육해공군 군승단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 대령으로 진급, 3군 군종참모와 국방부 군종실장을 지냈다. 1995년 대령으로 예편하고 다시 종단으로 돌아가서 수행자가 됐다. 이후 조계종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과 호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계위원을 역임했다. 2019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고, 2023년 4월에는 원로의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매일 아침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동국대 불교학술원으로 출근한다. 대종사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소임을 맡아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현역이다. 학술원장실에서 만난 자광 대종사에게 근황을 여쭈니 “별 것 없어요. 내가 밥 해 먹고, 빨래하고, 도량 청소하고, 부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실제 대종사는 세수가 80세를 훨씬 넘었지만, 주석처에 시자도 공양주도 부전스님도 두고 있지 않다. 이유가 궁금했다. “시자나 공양주 둘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내 수행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스님은 편하고 호화롭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서 밥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목탁치며 염불할 수 있는데 시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일상생활도 수행입니다. 스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수행해야죠.”

자광 대종사가 공양주, 시자, 부전 등을 두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대학생 · 청년을 위한 장학금, 종단 주요 정책 불사 기금 등 다양한 곳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다.

“내가 목탁치고 기도하니까 공양주, 시자, 부전으로 나가는 월 보시금이 없어요. 그런 돈을 아끼고, 신도들이 보내주는 보시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모이면 전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광 대종사는 지난 5월 11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동국대에도 장학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노구에도 시봉 없이 모든 것 ‘혼자서’
“생활이 수행… 아낀 정재로는 기부”
원로의장 추대 後 “출가자 문제 동참”
“행자교육부터 시대에 맞게 변화돼야”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서 나온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시대의 화두
불교 전승 위해선 전법포교가 최우선
“부루나 존자처럼 목숨 걸고 포교를”

현 세대 · 시대 맞는 승가교육을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자광 대종사는 원로의장으로 선출 직후 일성도 “종단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였다. 특히 “출가자 급감에 대한 문제 해결에 원로들도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단 원로들이 나서서 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출가자 급감 문제는 종단의 존폐가 걸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로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밥 먹고 살면서 놀면 안 되잖아요. 오랜 시간 수행하고 포교한 원로로서 지혜를 보태야지요.”

그러면서 대종사는 그간 포교의 부재를 지적했다.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출가자 급감 문제는 넓게 보면 저출산 문제와 연결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출가자도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에도 출가 자원이 이 같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청년 포교를 등한시했던 한국불교의 고질적 문제도 원인이 있습니다. 청년 포교 부재의 결과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자광 대종사는 출가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시대에 맞는 행자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젊은 세대가 춤을 좋아하면 춤을 추며 부처님을 찬탄하도록 하고, 랩을 좋아하면 〈반야심경〉 등 불경도 랩으로 독경하도록 하자”는 게 대종사의 주장이다. 그만큼 정형화된 교육이 아니라 차별 없고 열려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젊은이들은 스님이 되는 것이 엄청난 각오나 결심이 필요하다고 아는 것 같아요. 넓게 보면 스님의 삶은 결혼만 하지 않을 뿐 일반인과 별 차이 없어요. 이제는 청년들에게 부처님의 계율 지키는 생활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삶임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는데, 종단에서 염불대회를 열었습니다. 젊은 학인들이 랩으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등 새로운 염불 방식을 보여줘 인기가 좋았습니다. 재가 청년과 청년 학인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수행풍토를 만들면, 출가자 증가에 조금은 도움 되지 않을까요?”

망하기 싫다면 포교해야 합니다

‘춤으로 랩으로 젊은 세대를 불교로 이끌자’는 격외의 제안은 자광 대종사 자신이 그렇게 중생을 전법포교하고 교화했기에 가능한 제안이다. 실제 자광 대종사는 스승인 경산 스님을 따라 조계사에서부터 어린이 포교를 했다.

“우리 은사스님을 시봉하면서 ‘포교를 해야 불교가 망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며 조계사에서 어린이 포교를 시작했어요. 은사스님을 시봉하면 과자나 사탕 같은 것들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모아서 어린이, 중고등학생 법회에 가져서 나눴죠. 어떻게 보면 운문 스님과 제가 어린이 법회를 처음 시작했죠.”

〈A5면에 계속〉



봉축

2567(2023).05.27
부처님 오신 날

천년을 세우는
열암곡 부처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